

# 진누가(기영)&박은애 선교사 가정 사역소개

선교지: 독일 만하임 & 인도

안녕하세요.

독일과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진누가입니다.

저와 아내 박은애 선교사는 독일 만하임에서 캠퍼스 개척역사의 토대를 쌓고 있습니다.

이 벤치는 만하임 캠퍼스 내에 학생들이 앉는 벤치인데, 여기에는 빨간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한 대의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  
이게 최고의 삶이다.”

우리는 이 벤치가 학생들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여겨  
코로나 전에는 여기에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가 주기적으로 일상화 되면서 저희는 인도의 힌드 브라카쉬 목자와 Google Meet를 활용해 1대1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힌두교에 대한 기독교 메시지, 선교방식』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인도선교의 이해 II

힌두교에 대한 기독교 메시지, 선교방식

힌두의 땅으로 들어가라

대한기독교메시지, 선교방식

진기영 지음

아빌라북스

아빌라북스

진기영

- 고려대학교 사학과(A)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Th.M., Ph.D., S.D.M)
- 로렌스 대학교(Ph.D) 상담학사 석학
- 전, 인도 Union Biblical Seminary 종교학, 선교학 교수
- 현, C.M.I./C.M.G. 독일 선교사
- 현, 아빌라 북부의 문화 연구소장

저서

- 『인도 선교의 이해』(C.I.C. 2015)
- 『인도 선교의 이해』(C.I.C. 2016)
- 『사상사 선교방식의 총람』(C.I.C. 2018)
- 이메일: jky98@empas.com
- 카톡 ID: pnbkshjn18

독일 선교의 토대는 먼저 저희가 독일어와 독일문화에 익숙해지고 독일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 대학생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날 독일사회 및 독일 기독교 교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대학생들의 전체주의/권위주의에 대한 1968년의 저항운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1차로 연구된 것을 정리해서 Zoom 세미나를 통해 선교사 모임에서 발표하고 연말까지 책으로 출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독일어/영어 책들

독일 캠퍼스의 또 다른 초석은 같이 팀이 되어 추수할  
일꾼을 얻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2월 19일에 마침내 기다리던 박병우, 윤지혜  
3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 도착합니다.

이들이 독일에서 열매 맺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영어와 독일어로 1대1 노트를 준비시키고 독일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둘 뿐 아니라 이미 독일 대학에서 의대과정을 마치고  
안과의사가 된 이고은 자매도 합류하여 독일 학생들을  
제자 삼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